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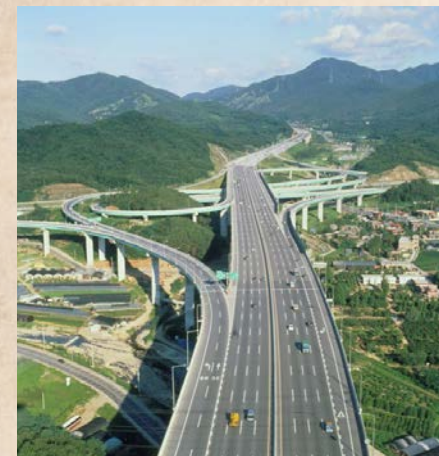
그·날·의·도·로

1999년 11월 26일

그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판교~일산구간)



1999년 11월 2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일산구간이 전면 개통되었다. 당시 판교~일산구간 길이 58.2km, 왕복 8차선 도로의 개통으로 퇴계원~판교~일산구간이 연결되어 판교에서 일산까지 종전 75분에서 35분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0호선)로 명칭이 변경된 본 고속도로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분기점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광역시를 거쳐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를 순환한다. 퇴계원 나들목에서 일산 나들목까지 북쪽 구간은 수직형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라 서울고속도로㈜에서 운영하며, 나머지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과 순환형이 조화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교통을 분산시키고, 특히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4년 수립된 '수도권종합교통망체계기본계획'에 의해 기획되었다. 판교~구리간(23.5km) 왕복 4차로는 1988년 2월 세계개발은행(BRD) 지원금으로 먼저 착공되어 1991년 11월 29일에 개통되었고, 1999년 11월 26일에는 남부 판교~일산 구간(58.2km)이 추가로 개통되었다. 이후 북부 민자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36.3km)은 우여곡절 속에 2007년 12월 28일 완공되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영상역사관, ©국가기록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